

제도권 미술공간의 확장성: PT&CRITIC 프로그램의 의의

임산(동덕여자대학교 큐레이터학과 교수)

2012년 여름, 경리단길에서 출발하여 지금 이곳에 이르기까지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의 발자취는 깊고도 넓게 한국의 동시대 미술에 각인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름, 그 깊이와 넓이의 주체가 되는 활동은 바로 'PT&CRITIC'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2년에 일종의 '파일럿' 형식으로 노은주 작가와 함께 첫 출발을 했었고, 그 후 매년 두 차례씩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도권의 미술공간들은 신진 작가 발굴이라는 목적을 지닌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공모'의 형식을 취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제출 받고 인터뷰 심사를 거치게 합니다. 미술계 전문가들이 그 평가의 과정에 참여합니다. 최종 단계를 무사히 통과한 지원자들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주어지기도 하고, 공모를 주관한 기관에서 마련한 전시장에서 개인전을 열거나, 혹은 자신의 원하는 곳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비용을 주기도 합니다. 기성 평론가의 글을 실은 전시도록을 출판할 수도 있고, 관객들과 대화할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비 작가들에게 미술계에 입문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시회의 이러저러한 이벤트를 꾸릴 수 있게 재정적으로도 지원 해주는 방식은 이전 제법 오랜 시간 우리 미술 제도에서 신진 작가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틀이 되어오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나름의 권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진 작가 발굴을 위해 동원된 '공모'의 안정성은 '제도'에서 인정받는 작가가 되기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하는 난관처럼 무의식적으로 젊은 예술가에게 체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공모 지원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자신의 작업 세계를 되돌아보고, 어렵사리 갖게 된 전시회를 벅찬 마음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예술가로서 누리는 무척이나 행복한 시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승리의 '상금'처럼 주어지는 그 과정이 신진 작가에게 필요한 미학적 여정이 될 수 있는 관념적 강도를 담보하고 있는지 여부는 그다지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과연 그러한 합리적 공정성과 예술 기반 지원이라는 사회적 선(善)의 의도가 아름답게 공존한다고 여겨지는 지금의 '공모' 일반의 제도성이 세련된 자본주의 문화에서 즐겨 노래하는 또 하나의 레퍼토리가 아닌지 의심해 봅니다. 아직 어렵스런 미래의 모습을 스스로 응축시켜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이기보다는 고된 감정적 대가를 묵묵히 치를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차가운 경쟁의 노동은 아닌지 의심해 봅니다. 아마도 '공모' 이후를 꿈꾸게 하는 낭만적 태도가 동기가 되어 그 길을 애써 긍정하여 걸어 본 예비 작가라면 한번쯤 가져보았을 법한 문제의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화할 수 있는 실험의 장이 아닌 자본주의의 공정 경쟁 이데올로기와 '공모'하는 우리 미술계 '공모' 제도의 그 새털처럼 가벼운 예술가 지원 관념, 과연 그 대안은 없는 것일까요?

신진 작가 발굴이라는 대의가 그 안정성과 보편성에 머무르지 않고 좀 더 도전적이고 비판적인 실천으로 변형되기를, 그리하여 고착된 제도적 체계에 실험의 상황을 열어둘 수 있는 대화의 가능성

으로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기존의 지원 제도 모두가 무용하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이 시대의 청년 작가들은 자본주의적 공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장비를, 혹은 그런 무방비에서 잠 시나마 벗어날,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그 어떤 지원의 손길에도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현실을 견뎌 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소박하고 본능적인 소망들이 제도의 관습이 구획하는 개별성의 틀을 당위적인 것으로 여겨 무조건 받아드리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지원 수혜의 과정이 자신에게 또 다른 에너지 창조에 계기가 될 수 있는지 질문해야 할 것이고, 생활과 욕망의 일상적 맥락에 사로 잡혀 스스로에 대한 서늘한 관찰과 비판에 소홀하여 자신의 예술적 신념을 장식하는 스킬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회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 운용하고 있는 PT&CRITIC 프로그램의 역할과 의의에 대해 잠시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작가 지원 혹은 전시 콘텐츠 생산의 목적에만 그치지 않고 제도권 미술공간으로서 신진 작가 발굴 제도의 대안이 되고 있는지, 제도의 실행에서 작가 주체성의 소외와 미학적 고립이라는 타성에 저항할 수 있는 절차의 창안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전시 기획의 다원적 원천들을 생산하고 이를 미술 공동체와의 문화적·교육적 관계 형성에 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PT&CRITIC 프로그램은 참여하는 신진 작가와의 직접적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이해와 해석을 경험합니다. 작품의 배경과 맥락에 대한 전문가들과의 공유는 이후 실제 전시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작가 자신의 예술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개념적인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2~3회의 비공개 크리틱 시간과 전시 기간 중 대중 앞에서 하는 공개 크리틱을 거치며 접하게 되는 적극적인 피드백의 언어는 작가에게 분절과 상상이 활성화된 창작 과정을 제공합니다. 이는 신진 작가에게 요구되는 자신만의 언설의 논리와 체계를 구상하는 데 몇 가지 힌트를 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작가의 선정 발표 이후 또 다시 자신의 '저자성'과 홀로 맞서야 하는 여타 공모 지원제도와 달리, PT&CRITIC 프로그램 참여 작가는 최종 결과로서 전시를 구현하여 보여주어야 하는 부담과 책임감을 대화적 절차의 역동성을 통해 미학적으로 승화시킬 기회를 가집니다. 미술대학 재학 시절 강의실에서 체험한 작품 프레젠테이션의 공허함을 떠올려 본다면, 우리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참여 작가 스스로를 이념적으로 강화하면서도 전시라는 담론화의 공간에서 기획자나 지원 기관의 자기재현적 권위에 주체적으로 임할 수 있는 현실적 준거가 될 것이라고 긍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T&CRITIC의 작가 선정은 공모 일반의 대중적 공개 형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김인선 디렉터가 직접 섭외하거나, 그가 신뢰하는 작가들에게서 추천을 받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제도공간의 공모와 달리 진입의 장벽이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창작 환경 일반의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공공적 지원제도로써의 책무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이라는 민간 공간 자체의 물적 규모와 살림살이에 적합하면서도 독창적인 큐레토리얼 입장과 전략을 세워나가기 위한 방식으로 보입니다. 작가의 선정과 작가와의 비평적 만남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의 활동에 관여하고 참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PT&CRITIC 프로그램을 통해 공간 운영의 협력적 기회를 반복 창출하고 다양한 종류의 '개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PT&CRITIC 프로그램은 전시를 마친 신진 작가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여 관객과 함께 그 작가의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도 다른 공모제와 크게 다릅니다. 프로그램 참여

후 2년이 지난 작가들은 'Reunion' 그룹전을 통해 다시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 작품을 선보이게 됩니다. 참여 작가에게는 PT&CRITIC에서의 전시가 첫 번째 개인전입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이 남긴 예술적인 역동의 현재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동시대 미술 관객에게 무척 매력적인 경험일 수 있습니다(물론 작가 본인에게는 만만치 않은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신진 작가 지원제도 대부분이 단기간 준비의 최종 결과물로서의 '전시'를 유일한 성과 행위의 근거로 삼는다는 사실과 비교했을 때, 청년작가의 실험적 시간의 여정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관객과 함께 그 새로워진 모습을 다시 조명하는 PT&CRITIC 프로그램의 'Reunion' 기획은 작가를 향한 '열린 탐구'이면서 미적 가능성의 실질적인 매개가 되어야 하는 동시대 지원제도의 변화된 과업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PT&CRITIC 프로그램은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이 제도권의 미술공간으로서 자신만의 입장과 전략으로 담론을 창출하고, 대화와 공유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작가 발굴, 전시 기획, 관객 개발의 유형뿐만 아니라 예술교육과 예술조직 경영에서의 여러 가치들의 논의 또한 가능한 모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의 과정 하나하나에는 디렉터가 지향하는 조직적 네트워크 관리 특유의 제스처도 스며있습니다. 일종의 플랫폼으로서 PT&CRITIC 프로그램은 미술계를 구성하는 여러 주체들이 함께 유동적이고 불확정적인 상황의 맥락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청년작가들의 다채로운 미적 동기를 끌어내어 당대의 예술실천의 패러다임에서 도전적이고 밀도 있는 언어로 전화될 수 있도록 자극하고 비평하는 그 대안적인 의지가 계속해서 잘 발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당대의 '미술의 위기'를 만들어 내는 사회의 정치경제적 변동, 그리고 그것과 깊이 연동하는 미술정책과 행정의 변화에 대한 깊은 성찰적 실천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PT&CRITIC 프로그램은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이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차지하는 깊이와 넓이의 차원에 대한 중요한 한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